

2016세계유방암학술대회(GBCC) 성료



세계유방암학술대회 2016 및 한국유방암학회 학술대회(Global Breast Cancer Conference 2016)가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간 제주 신라호텔에서 개최됐다.

2007년부터 격년으로 개최했던 세계유방암학술대회(이하 GBCC)는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번 2016년 6차 대회에는 31개국 1130명의 참가자가 등록했다.

이번 회의는 공모전을 통해 'Better Thinking for Better Life: Exploring Advancing and Transforming Cancer Care'라는 주제

를 선정해 진행됐다.

이번 대회에는 미국유방암 방사선요법의권위자인 Bruce G. Haffty(Rutgers Robert Wood Johnson Medical School, U.S.A) 교수와 미국 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의 Jorge S. Reis-Filho 교수, 이탈리아의 Jean-Yves Petit(European Institute of Oncology NIH Clinical Center), 미국 UCSF School of Medicine 의 Hope Rugo 및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백순명 교수 등이 기조 강연자로 나섰다.

37개의 세션, 282편의 강의를 진행했으며 총



15개국의 100명의 유방암 관련 세계적인 석학들이 유방암 관련 최신의 연구 주제를 발표했다. 학술 프로그램은 유전체 정보에 근거해 개인별로 다른 치료법을 적용하는 정밀의학을 비롯해 순환종양세포 관련 주제와 중앙성형을 포함한 다양한 수술적 치료 전략 이슈와 치료제에 대한 내성 극복 방안 등 유방암과 관련된 내용을 망라했다.

특히, 다학제적인 프로그램 구성은 GBCC 2016까지 지속되고 있는 큰 장점이다.

삶의 질과 관련된 간호세션 및 생존자 관련 연구 프로그램, 유전체학을 아우르는 유방암 관련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두 함께 참여해 각 주제와 관련된 강의 및 토론회의 장이 마련됐다. 또 이행성연구, 영상의학, 병리학, 외과종양학, 중앙내과학, 방사선종양학분야에서의 발전을 요약하는 세션과 더불어 각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강의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GBCC 2016은 아시아지역 유방암 관련 네트워킹의 중심을 목표로 세계 인구의 60%가 살고 있는 아시아권의 유방암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 태국, 필리핀 등의 아시아지역 유방암학회 및 대표자들과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교류를 지속했다.

GBCC 2016은 ABC Networking Business Meeting (Asian Breast Cancer Networking)을 주최해 최근 전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의료 BIG DATA에 관한 실체적 접근을 시도했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망라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해 환자들에 대한 치료 데이터를 구축 및 공유하는 유방암 등록 사업을 추진했다.

아울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유방암 Mentorship Directory를 구축해 각 국가 및 세부전문분야의 Mentor를 선정하고 그들과의 학문적 교류를 원하는 Mentee를 연결하는 노력도 함께 이뤄졌다.

더불어 이번 GBCC 2016에는 아시아 유전성유방암 컨소시엄(ABRCA Consortium)도 함께 진행됐다.

아시아 유전성유방암 컨소시엄은 7개 국가가 참여하는 회의로 여기선 아시아 지역의 유전성유방암에 대한 학술연구 및 정책적인 방향이 논의됐다.

김윤선 기자/MP저널